

# 독일 '가족교육기관'(Familienbildungsstätte)의 통시적 분석과 한국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에의 시사점 \*

Recommendation for Korean Family Life Education  
Based on German Family Life social Centers

서 영 숙 \*  
Seo, Young Sook  
정 미 리 \*\*  
Jung, Mi Ri

## Abstract

This analysis of the history and programs of family education centers (Familienbildungsstätte) in Germany generated suggestions for designing Korean family life education programs. Familienbildungsstätte started around 1900 and changed over time due to varying social and political situations. Rapid social change and the sudden economic crash in Korea produced many family problems, such as broken families and family related conflict. As the Korean family can no longer provide traditional psychological and economic support, some social institution is required to provide intervention and encouragement to both special needs families and normal families. This study generated suggestions for designing and managing Korean family life social centers.

## I. 연구의 목적과 범위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이 연구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는 독일의 가족교육기관의 시대별 교육내용과 운영방법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건강한 아동,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것이다.

현대가족은 자본주의의 구조적 모순, 산업화, 규범의 아노미화, 임금노동자의 증가, 가족규모와 기능의 축소와 약화, 가족형태의 다양화, 가부장

\* 본 논문은 1997년 학술진흥재단 학제간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연구의 일부임

\*\*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 숙명여자대학교 사회·교육과학연구소 책임 연구원

주의의 가치와 양성평등주의 가치의 혼재 등의 요인들로 인해 가족빈곤 문제, 이혼 문제, 가정폭력 문제, 비행청소년 문제, 맞벌이 가족의 자녀 양육문제, 노부모의 부양문제, 성차별로 인한 가족문제 등의 사회문제를 어느 때보다도 심각하게 경험하고 있다(김성천, 1993). 이렇게 가족이 겪고 있는 세대간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 상의 갈등, 가족기능의 축소와 해체에 따른 부적응 등에 기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학교교육이나 개인 가족의 노력 이상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런 개입의 하나가 가족관련 전공학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족생활교육이다.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대한 학문적인 움직임의 시초는 미국에서 공업화 도시화 등의 사회변화와 이에 대처함에 있어서 가족의 부적합성 때문에 1900년경을 전후하여 발생하였고(오윤자, 1992), 국내에서는 90년대에 들어와서 활발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특히 1982년 12월 31일자로 제정 공포(법률 제 3648호)된 사회교육법과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11230호, 1983)에서 사회교육의 10개 영역 중 네 번째로 가족생활교육영역이 명시되면서 제도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가족생활교육은 그 범위와 내용이 다양해졌으나 가족생활교육과 관련된 고유한 학문적 결속력이 부족하며, 이론적 개념의 틀이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오윤자, 1992). 현재의 가족생활교육의 이론적 개념들을 제공하는 좀 더 포괄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용어로 김혜영(1996)은 '가족문화'라는 개념을 제시하며 가족 생활영역에서 발견되는 규범, 가치와 기능, 다양한 생활경험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즉, 가족생활의 실체를 보다 포괄적으로 묘사해줄 뿐만 아니라 '가족'이 고유하게 보유하고 있는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는 개념으로서 '가족문화'를 설정한 것이다.

가족 구성원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시도는 벨

기에, 프랑스, 캐나다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 새롭게 시작되고 있다. 그런데, 대부분의 연구는 부모를 아동 교육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도구적 존재로 본다. 반면 독일의 가족교육프로그램은 가족 구성원 각자를 존중하면서도 가족 전체를 하나의 유기체로 보며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을 총체적인 차원에서 지원하는 연구와 실천이 상당한 역사를 쌓아가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참가자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구 서독에만 300 개 가량의 '가족교육기관'이 있으며 가족교육 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도 매우 활발하다.

독일은 동독과 서독의 분단을 경험한 나라로서 전쟁과 통일을 경험하며 가족간의 분열, 과거와의 단절과 화합이라는 복잡한 가족사회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점에서 우리와 유사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진 국가들 중에서 가족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고, 사회 발전 속도에 비해서 건강한 가족문화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며, 이미 확고한 사회적 기반과 일반인의 공통적 인식을 통해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규모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독일 가족교육기관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질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실시 방안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 2. 연구방법과 범위

독일에서의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의 역사, 내용, 방법 등을 분석하기 위해 '가족교육기관'을 통시적 접근(diachronic approach)의 방법을 통하여 조사, 분석하였다. 통시적(通時的) 접근은 시간을 통해 문화가 변동해 가는 과정에 초점을 두어 한 문화 체계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또는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떤 식으로

상호 작용하면서 그 관계가 변해가고 있는지를 동태적으로 보는 접근법이다. 통시적 접근은 시대에 따른 문화 변화의 특징을 밝힘으로써 인류의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급속한 사회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오늘날

의 문화 연구에 매우 적합한 접근법이다(정문성, 1997).

이 연구에서의 주된 분석 대상은 주로 독일의 '가족교육기관'의 발행지 및 연맹의 정보지들이었다.

## II. 독일 가족교육기관의 발전 과정

### 1. 독일 가족교육기관의 출현을 가져온 사회적 배경

독일에서 가족들을 교육시키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본격적인 시도들은 19세기 말부터 있었다. 타우베(Taube)는 라이프찌히에 어머니와 부모들에게 아기돌보기를 가르치기 위한 기관을 설립하였고, 1906년에는 베를린에 아동연구와 교육상담을 위한 '푸어스텐하임진료소'(Poliklinik Fürstenheim)가 생겼다. 진료소의 업무는 아동교육의 어려움이나 아동의 비정상적 행동을 이해하도록 돕거나 그 원인을 알아내는 것이었다. 이 기관의 작업이 의미있는 것으로 인정받아 다른 많은 기관들이 설립되어 1907년에는 75개의 기관이 되었고, 1910년에는 약 200개의 기관들이 생겼다. 이 기관에는 유치원, 육아상담소, 교육상담소, 학습심리상담소, 결혼상담소, 청소년 사무소 등이 포함되었다(Jeong, 1988).

특히 1917년에 탄생한 '어머니학교'는 어머니 대상의 학교로서 오늘날 '가족교육기관'이라는 명칭을 가진 기관의 출발점이 되었다. '어머니학교'는 1914-1918년의 전쟁 속에서, 즉 독일 사회가 그 이전에는 체험하지 못했던 위기의 순간에 태어났다. 독일의 가족교육기관은 '부모교육'의 형태로 시작되었는데, '부모교육'이라는 주제는 잘쯔만(Salzmann)에서 프뢰벨(Fröbel)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한 주제였다.

독일 가족교육기관의 출현을 가속시킨 좀 더 대중적인 차원의 이념적·사회적 운동이 있는데, 이 운동은 20세기 전반 독일의 모습에 큰 흔적을 남겼다. 19세기에 탄생한 독일의 노동자운동은 중세 길드의 붕괴와 산업화 과정에서 점점 악화되는 근로조건을 해결하고자 생겨난 운동으로, 일반 부모교육이 이 운동에 포함되어 있었다. 독일의 여성운동은 1865년에 '전독일여성동맹'이 탄생함으로써 시작되어 주로 여성이 고등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여성교육기관과 특수기관을 창설하고 착취당하는 여성을 위한 방어, 그리고 법적 평등, 특히 선거권을 위한 정치적 투쟁 등을 활동 주제로 하였다. 청년운동은 19세기의 사회적 혼란에 빠진 젊은이들에게 삶의 활력소를 주기 위해서 등장한 것으로 가족교육과 이념적 연결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19세기말부터 시작한 운동으로 경제공황의 시기에 실직이나 재교육의 문제에 답하기 위해 시작된 민중교육운동이 있다. 이들 민중운동은 가족교육기관의 출현을 가속화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하였다.

### 2. 어머니학교와 나찌 시대 전후

전시인 나찌 시대에는 노동자 계층의 영아사망률이 매우 높고, 부모행동모델이 없으며, 수많은 군인 아내들이 지나친 격정에 시달렸다. 이때 루이제 람페르트(Luise Lampert, 1891-1862) 여사

는 1916년에 슈투트가르트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설립하고, 1년 뒤인 1917년에 최초의 '어머니학교'를 설립하여 방 4개짜리 아파트를 4채 빌려서 소규모의 그룹을 지어서 활동을 시작하였다. 람페르트는 어머니 학교에 대한 아이디어를 글이나 강연을 통해서 일반에게 알리기 시작했고,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여러 도시와 심지어는 미국에서도 슈투트가르트의 어머니 학교를 모델로 자신들의 기관을 설립하기 시작했다. 시골에서 이동수업이 개최되고, 수많은 조합이나 종교단체들이 어머니 교육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다. 드디어 1932년에는 20여 개의 어머니 학교들이 연합체를 결성하였다.

1933년,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나찌당이 득세하면서 이런 사설단체들과 종교자선단체들은 활동을 중단해야 했다. 나찌는 교육을 18세 이상의 모든 여성에게 '독일여성과 독일어머니의 의무'를 준비시키기 위한 도구로 보았다. 교육을 통해 정체감과 소속감을 유지하고, 정치적으로 교화시키고 새로운 가치관을 주입시켰다. 이를 위해 지력보다는 감동과 정서를 더 부추기며, 영웅적 봉사에 적절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인간의 내면을 자극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교묘하게 이끌어갔다.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교육활동은 '독일여성노동'의 한 부서인 '제국어머니봉사회'라는 국가 부서에 포함되었으며 기관들은 매우 신속하게 자리잡아 갔다. 1934년에 강의를 들은 여성들은 6만 명이었고, 1936년에는 33만 명이나 되었으며, 1941년에는 517개의 '어머니학교'가 있었다. SS 대원이 결혼하려면 약혼녀가 이 교육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가정집 건축허가를 받거나 젊은 부부를 위한 복지금을 받으려 해도 이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으므로 가족교육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숫자가 급격히 늘도록 고무했다(Jeong, 1993).

2차대전이 끝나자 '어머니학교'는 와해되었다가 곧 이어서 새로운 토대 위에 다시 탄생하여 히틀

러의 출현 이전부터 존재해오던 많은 기관들이 새로이 합병되고, 오래 전부터 이 일을 해오던 신교도 단체들과 구교도 단체들이 재조직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전후 어머니학교의 일반적인 관점은 평생교육의 차원에서보다는 사회사업의 차원에서 긴급한 요구에 응답하는 것으로 치료할 필요가 없도록 미리 예방하는 것이 관건이었다. 특히 현대사회가 고향이 없다는 느낌을 극복하도록 가족적인 친근한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그 당시의 통계적 자료를 보면, 어머니학교 참가자의 절반 가량이 기혼여성들이고, 10-30%가 직업을 가졌다(그 중 65%가 상업에 종사). 20-30세가 가장 많고, 많은 젊은 여성들이 결혼 준비를 위해 참석하였으나 햇수가 거듭될수록 25-30세의 기혼여성의 참석률이 증가해갔다. 50년대와 60년대에는 어머니학교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났으며, 지원금은 일반적으로 사회부에서 지급되었으나, 바덴-뷔르템베르크주에서는 문화부에서 지급되었다. 그리고 어머니 학교뿐만 아니라 각 종파의 협회들, 복지단체, 여성단체, 시, 적십자, 자선단체, 조합, 심지어는 기업까지도 이 일에 깊이 연결되어 지역이나 조직명에 따라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었다.

### 3. 가족교육기관으로의 변환

어머니학교가 그 이름을 가족교육기관(Familienbildungsstätten)으로 바꾼 것은 대략 1965년과 1975년 사이의 일이었다. 여성의 이미지는 달라졌고, 되찾은 경제적 번영으로 인하여 생활조건은 나아졌으며, 교육의 대상뿐만 아니라 내용도 재구조화가 필히 요구되었다. 어머니교육에서 가족교육으로 바뀌면서 남자들과 자녀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졌고, 명칭에 관한 토론도 거듭되었다. 그 결과, 인간발달에 중점을 둔 성인

교육, 자녀교육자로서의 부모교육, 전통적인 독일 아동사회교육학을 포함하고 가정 전체에 중점을 둔 가족교육이라는 명칭이 사회적 동의를 얻기에 이르렀다.

이 시기의 발전을 유도했던 요인들은 근본적으로 사회 자체의 변화에서 온 것이다. 가정의 걸 모습 변화, 결혼제도의 변화, 남녀를 분리시키는 생활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의 고양, 출생률의 격감으로 인한 아동지위의 변화 등 과거와는 다른 가족 구조와 기능, 의미가 중요하게 되었다. 또한 평생교육이 일반화되고,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됨에 따라 가족교육기관들이 재정을 제대로 확보하려면 새로운 규준에 적응해야 했다.

1979년, 구 서독에는 260개의 가족교육기관이 있었는데, 105개의 구교도 기관, 84개의 신교도 기관, 48개의 비 종교적 기관, 그리고 26개의 무소속 기관들이 있었다(Schymroch, 1989). 거의 대부분의 기관들은 사무실, 부엌, 회의실, 아뜰리에, 체조실 등을 독자적으로 갖추고 있었고, 다른 지역이나 시골에 지부를 갖기도 하였다.

#### 4. 80년대 이후의 가족교육기관

70년대가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끌어내려는 경향에 의해 지배되었다면, 80년대 이후에는 여성과 가족과의 관계를 보다 긴밀히 하고자 하는 경향이 생겨났다. 정책적으로 일부 기관은 사회복지기금이나 사회보장비 등의 지원을 통하여 여성들이 노동시장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하였으

며, 가족교육기관은 여성들이 가정에서 봉사한 다음에 일자리를 찾기를 원할 경우, 그 여성들의 취업을 도울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조직하였다.

80년대 이후에 가족교육기관의 숫자는 특별히 더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기관의 기능이 다양해지고 기관에 적용되는 법률적 해석이나 재정공급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각 기관마다 제 나름의 특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독일의 지방자치제도가 더욱 정착되고, 사회적으로 안정된 시기에 접어들면서 삶의 방식이나 가족의 요구가 다양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이 무렵부터 가족교육기관에 참가하는 남성의 비율이 약간 올라가고(10%), 80년대부터 일부 남성들은 '탄생준비'와 '육아법시범'에 참가하기 시작했다. 아동은 전체 참가자의 15%를 차지하여, 혼자 오기도 하고 부모와 함께 와서 요리, 만들기, 빵굽기, 춤, 노래, 놀이 등의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도 한다. 물론 가족교육기관의 주 이용자들은 여성들로서(70-80%) 점차 취업여성들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Schymroch, 1989). 사회활동을 원하는 전업주부들이 가족교육기관의 임시직원이 되었으며, 가족교육 전문가양성프로젝트에 참여했다.

80년대에는 전통적인 가족교육기관 이외에도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어머니센터'가 등장하여, 주로 중류계층이 이용하는 가족교육기관에 가는 것이 불편한 저소득계층의 여성들이 미용, 재봉, 신체 가꾸기, 아이보기, 상담, 교육 등의 서비스를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 이 두 기관은 경쟁적이 아니라 보완하며 활동해왔다.

### III. 가족교육프로그램의 시대별 내용과 특성

#### 1. 어머니학교 프로그램

어머니학교 프로그램은 초기에는 여성들에게

임신, 출산, 육아, 유아교육 등에 관한 교육이 기본적인 교육목표였다. 도시의 어머니학교에서는 생리학, 의학, 위생, 식이요법, 모성심리 등의 프

로그램이 실습과 함께 제공되었으며, 특히 유아 놀이와 유아돌보기 등은 유치원에서 아동들을 직접 관찰하며 할 수 있어서 많은 흥미를 불러일으켰다. 요리나 가사방법, 실직자들의 교육뿐만 아니라 가족의 권리에 관한 강의도 제공되었다.

30년대에는 프로그램의 방향이 학령기, 청소년기, 가정의학, 식이요법, 종교교육, 가정관리, 여성체조(특히 임신부를 위한) 등의 문제들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시골을 포함한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어 갔다. 그후 나찌 시대에는, 일반적인 입문 교육 외에 가사관리, 건강, 교육, 민속전통의 4개 종류의 교육이 첨가되었다(Schiedeck, 1989). 표면적으로 볼 때 매우 실용적인 이 교육의 이면에는 사실상 여성들의 소비습관에 영향을 미치려한 정책적인 목적이 있었다.

수업은 주로 이동식 강의나 기관, 기숙사를 통한 세 가지 방법에 의해서 이루어졌다(Schiedeck, 1989). 이동식 수업은 시골지역을 위한 강의로서 한 여성 지도자가 각 마을을 돌며 보름 정도의 강의를 하는 것이다. 수업에 필요한 도구들과 자료들이 들어있는 가방을 들고다니며 육아시범을 보이거나, 요리, 재봉 등의 실습을 해 보이고 가정방문도 병행했다. 도시에는 '어머니학교'가 세워졌고, 매우 막강한 직원을 거느리기도 했다. 기업체도 '근로자어머니학교'라는 이름으로 어머니학교운동을 시작하였다. 여성들이 아예 합숙시설에 들어가 교육을 받는 기숙사식 강의는 기혼여성들을 위한 '가정주부학교'와 혼기의 젊은 여성들을 위한 '신부학교'의 두 종류가 있었다. 기숙사에서 4주 내지 6주의 수업이 이루어졌는데, 여성들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도록 수업기간동안 각 가정의 가사를 도와줄 파출부들을 파견하기도 했다.

어머니학교 교육의 기본 원칙은 항상 여성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시작하는 것이었다. 이데올로기는 지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여성의 삶과

연결되는 방식으로 전파되어야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가족생활이나 가사와 관련된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좀더 광범위한 전체로, 즉 국가의 포괄적인 삶 속에 어떻게 포함될 것인가를 문제삼았다. 모든 프로그램은 목적이 되는 이념의 진술과 기술적인 설명, 실질적 연습의 세 가지 측면을 포함하였다(Erny & Jeong, 1996).

세계 제 2차 대전이 끝난 후부터는 부부문제와 가족문제, 각 발달단계에서의 아동보호와 교육, 가정에서 환자 돌보기, 가정생활조직, 여가생활조직, 문화적·사회적·정치적·경제적 문제 등의 새로운 제목의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특히 결혼준비와 가사활동에 관련된 장기간 합숙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설되었다.

## 2. 가족교육기관 프로그램

60년대 후반 무렵부터는 가정 속에 '파트너십'을 형성시키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되면서 단순히 지식 전수와 기술적 훈련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보고 집단역동이론에서 얻어진 자료들에 근거한 집단작업을 채택하여 타인들과의 관계형성을 연습하고, 사회화의 과정에 따르도록 했다. Dax(1978)와 Schaefer(1978)는 60년대 말에 생겨난 "부모-자녀" 그룹들은 현대 핵가족에서 발생하는 복잡미묘한 요구에 응답하는 특별한 방법이 되었다고 보고한다. 이런 집단활동이 오늘날 가족교육기관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 중 30-50%를 차지한다(AGEF, 1989a).

보통 일 주일에 한 번 8-10명의 어머니들(가끔 한 두 명의 아버지들 포함)이 프로그램 진행자를 중심으로 자녀들과 함께 놀이감이 갖춰진 방에서 활동에 참여한다. 6주에서 4세까지의 자녀들의 연령에 따라 그룹이 나뉘어지며, 아이들은 핵가족의 범위 내에서는 획득될 수 없는 사회적 학습경험을 하게 한다. 아동들은 그룹 속에

참여하는 것을 배우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배우며, 부모들은 일상생활에서 응용될 수 있는 놀이와 일을 알게 된다. 부모들에게는 그들이 관찰하고 체험한 것을 토론하며 공동활동이나 교육문제들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부모들끼리의 저녁모임이 제공되기도 한다. 이 만남은 대부분 10회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보통 2-3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 외국인 여성, 장애아 부모, 편부모를 위한 특별집단이 생기기도 하고, 부모-자녀 공동체조, 수영, 노래 및 음악, 그림, 요리, 분장, 놀이 등의 특별한 활동을 하는 그룹도 있다.

60년대의 작업은 주로 아동과 아동발달에 집중되어 아동의 사회화와 관련된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부모의 능력을 활성화시키려고 하였으며, 70년대 말에는 교육의 핵심이 아동에서 가족의 일상생활로 바뀌어갔다. 특히 가족구성원사이의 의사소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였다. 아버지들은 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만들기, 수선, 전시 및 축제준비 등의 특별활동에만 참석했다(AGEF, 1989a).

많은 기관들이 대기자 명단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부모의 요구가 많았고, 참가 아동의 연령도 점점 더 낮아져 심지어는 6주 이하의 영아들을 포함하는 집단도 있었다. 가령 프라하의 심리학자인 코흐(Jaroslav Koch)가 만들어낸 “프라하 부모-자녀 프로그램”은 영유아의 감각적, 정신적 발달을 위한 운동자극프로그램인데, 그룹은 6-8명의 성인과 그 아기들로 구성되고, 일 주일에 한 번 모여서 90분 동안 실습을 한다(BAG-Info, 1987). 제 1코스가 8-10주 동안 계속되고, 끝나면 기거나 견고자 하는 아기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코스로 옮겨가고, 그 다음에는 1살 반 이상의 아기들과 그 부모들을 위한 모-자 코스로 옮겨간다(AGEF, 1982, 1989b).

몇몇 가족교육기관은 지부를 설치했을 뿐만 아

니라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이동하는 조직을 갖기도 했다. ‘이동 어머니학교’는 고정된 기관보다 덜 부담스럽고, 비용도 덜 들어 대도시에 위치한 가족교육기관들을 이용할 기회가 없는 시골사람들과 오지의 사람들을 위해 생겨났다. ‘이동부모학교’가 마을을 방문하고 나면 그 마을에 상설 협회를 생기기도 했다. 이동 팀은 2대의 자동차로 수업자료, 전시자료, 공구, 도서, 요리 및 봉제 도구 등을 각 장소로 운반하며, 2명의 전문가와 현지 협회의 지원자들로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한 지역에서의 작업이 보통 2-3개월, 때로는 12개월 동안 이루어지기도 했다. 특히 아동 도서와 놀이감의 전시 및 놀이시범은 주민들을 유인하는 훌륭한 매개체였다.

### 3. 80년대 이후의 가족교육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은 각 기관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가정생활 준비, 가정과 사회, 가정과 교육, 가정과 여가, 가정과 건강, 가정과 가사의 6개 부문으로 구조화되었다(Schymroch, 1987). 가정생활준비 영역은 독일 가족교육 초기부터 매우 중요하게 여겨온 영역으로서 임신부의 삶, 임신부의 자아개념, 아버지와 조부모의 역할, 예비부모 교육, 예비조부모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남녀 사이의 동반자적 관계를 증진시키는 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강의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놀이를 곁들인 활동을 마련되어 가령 “생의 출발”이라는 명칭의 양육방법수업은 4 - 8명이 주사위 게임식으로 진행된다. 40장의 상황카드에는 유아를 키울 때 일어날 수 있는 특정한 양육상황이 짝막하게 묘사하고 질문이나 요구사항의 형태로 적혀있어 그것은 집은 사람이 스스로 답대로 행동하거나 태도를 정하고, 혹은 건너편, 왼쪽, 오른쪽 사람들에게 질문하며 대화를 해나간다. 놀이를 통해 선생

아 양육에서 끈질 생기는 문제를 풀어갈 수 있으며, 놀이로 인해 양육에 관한 질문에 흥미가 더해지고, 다른 참가자들과의 의사교환이 자동적으로 발생한다. 이런 수업을 통해 예비부모들은 자녀양육에서 겪게 될 과제들을 예상하게 되고, 배우자와 함께 스스로의 양육방식과 삶의 방식을 발달시켜 간다(BAG-Info, 1984).

가정과 사회 영역과 가정과 교육 영역은 가족의 삶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과 가족간의 화합에 주력하며, 가족의 권리, 가족정책 결정 및 가족일상, 직업, 직업시장정책, 직업구조전망 등이 가족주기별로 가족에 미치는 영향, 주거문화, 각 주기별 가족이 가진 문제들이나 특수상황에 처해진 가족들의 문제들을 집단별로 다룬다. 가정과 여가 영역에서는 주로 창의적 일을 위한 재료와 매체, 단체로 만들 수 있는 것들, 단체 속에서의 재료와 매체 혹은 다른 구성원들이 나에게 제공하는 자극, 주말이나 휴가기간동안 여러 영역(공동요리, 식사, 놀이, 축제 등)에서 공동으로 준비하기 등과 같은 주제들이 다루어진다. 가정과 건강 영역에서는 건강유지 및 환자 돌보기, 체중감량 및 균형체조, 부모-자녀를 위한 놀이체조 등을 다루고, 가정과 가사 영역에서는 주부들을 위한 세미나, 옷 만들기 및 기타 재봉, 영양 및 조리 등을 다룬다.

남성을 위해 바람직한 가정생활을 위한 특별활동(체조, 공작, 놀이), 부-자 주말, 아버지와 가족들이 함께 하는 공예, 수공예품박람회 출품과 전시 및 판매, 남성의 힘든 삶 토론그룹, 주제토론을 위한 남성사무실 등의 프로그램들이 시험 운

영되고 있다. 남성들이 정형화된 고정관념에서 빠져 나오기는 힘들었지만, 아버지의 역할이 현저하게 달라졌고, 이혼과 실직이 일반적인 사회적 현상이 되면서 아버지들에게도 이런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가 등장했다.

독일의 가족교육기관들은 시대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새로운 작업형태와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가령 80년대 이후부터는 입양아부모, 홀부모, 암환자가족, 실직 여성 등 특정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며, 카페 '클럽' 등의 비형식적 만남을 통해 상담을 하기도 하고 가정방문, 여가시간제공, 숙제 도와 주기 등의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Schymroch, 1987). 외국인가정 수용, 실직기간 활용, 환자 가족 돕기, 그 밖에도 여자죄수 돕기, 지체장애자 고립 극복, 평화교육, 환경문제에 대한 의식갖기, 환경운동 등 여러 특정 주제 분야에서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자발적인 방법으로 행동하는 것을 주로 시도하고 있다.

실제 각 프로그램들의 진행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함께 이야기하고, 경험을 나누고, 사건들의 정의적인 측면을 표현해보고, 그런 유형의 문제를 혼자서만 가진 것이 아니라는 의식을 갖게 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서로 용기를 주고, 객관적이 되고, 그리고 연대조직을 만든다. 비록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실제의 엄청난 요구에 비하면 아주 미미한 일이지만 진정한 심리적 도움을 줄 수 있을 때에는 그것은 대단한 일이 된다.

## IV. 가족교육기관의 조직망 및 종사자

### 1. 가족교육기관의 조직망

각 가족교육기관은 활동방법이나 관리에서 충

분한 자율권을 누리기는 하지만, 대부분 네 개의 커다란 연합 조직 중의 하나에 소속되어 있다. 기관의 정치적 성향과 총체적 오리엔테이션, 공권력,



연구, 연수, 프로그램 개발, 홍보 등의 활동에 따라 어떤 연합에 속하는지가 결정된다. 네 개의 연합은 본에 있는 '가족교육기관연합'(Arbeitsgemeinschaft von Einrichtungen für Familienbildung : AGEF), '노동자복지-연합'(Arbeiterwohlfahrt-Bundesverband), 슈타인에 있는 '신교도가족교육기관연합'(Bundesarbeitsgemeinschaft Evangelischer Familienbildungsstätte : BAG), 뒤셀도르프에 있는 '구교도가족교육기관연합'(Bundesarbeitsgemeinschaft Katholischer Familienbildungsstätten : BAGKFB)이 그것이다.

## 2. 가족교육기관의 종사자

가족교육기관의 종사자는 87%가 여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Jansen, Keil, Lorenz, & Remy, 1981), 남성종사자의 비율은 구교도 기관에서 가장 높았고(22%), 신교도 기관에서는 가장 낮았다

(6%). 인력의 40%는 36-45세였고, 80%가 기혼으로 일반적인 평균 자녀수보다 많은 자녀를 둔 부인들로 절반 이상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았다. 구교도 기관에서는 종일근무가 지배적이었고, 신교도 기관에서는 시간제 근무, 그리고 비종파적 기관에서는 시간당 보수를 지급하는 방식이 지배적이었다. 종사자들은 지속적인 종사자 교육을 원할 뿐 아니라 실제로 그러한 평생교육에 참가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종사자의 61%가 지난 2년 동안 종사자교육에 참여했고, 96%는 참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러 조사들에 의해서도 종사자들을 위한 현직교육은 매우 필요한 사항으로 지적되어 '신·구 양교의 교육활동'이라는 기관을 통하여 종사자 연수가 제공되기도 하였고 각 가족교육기관들이 자체적으로 계속교육을 할 수 있도록 카일(Keil, 1983)과 슬라이허(Schleicher, 1984) 등은 교육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였다.

# V. 독일 가족교육기관이 한국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에 주는 시사점

## 1. 독일 가족교육기관의 역사적 변천과정이 주는 시사점

독일 가족교육기관의 성공 비결은 프로그램의 풍부함과 다양성, 시대적 요구와 경향에의 적응, 종사자들의 능력, 믿음직한 이미지에 있다. 전체적인 조직은 매우 구조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지역적 자율권이 있어 중앙과 주변 사이의 바람직한 균형과 더불어 탈중앙집중화되어 있다. 때로 좀 극단적인 논쟁을 벌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는 전체 속에서 약간의 소요만 있을 뿐이다. 독일에서 사회민주주의라고 할 때의 사회적이란

말은 민주주의를 단순히 '정치적 민주주의'에만 국한시키지 않고 사회·경제생활에까지 널리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다. 여성운동이나 청소년운동 등도 독일사회민주당이 당세 확장을 위해 권장·육성한 정치적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지만, 그러한 운동 덕분에 독일에서의 가족교육은 좀 더 성공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가족문화교육은 시대적 상황과 대중의 요구에 부응하는 내용과 방법론을 담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시민운동조직을 중심으로 국가 전체적인 정책이나 일반 사회교육과 서로 맞물려 가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의 전개방식이 강제성을 띤 하향식 행정체제는 아니어야 한다는 전제는 변함이 없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도 가족문화교육의 기본 방침에 위배되지 않아야 진정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 2. 독일 가족교육기관의 프로그램 내용 및 특성이 주는 시사점

독일의 '가족교육기관'은 가족을 공동체로 보기를 원하고, 성별이나 세대의 구분을 넘으며, 사회적 연계 속에서 가정의 다양한 역할을 재배치하며, 자녀에서 조부모에 이르기까지 모두에게 구체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상호교환, 의사소통, 공동체적 삶, 지속적인 관계의 수립, 여기서 불가피하게 생겨나는 문제들을 공동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을 제공한다.

가족문화교육이 거의 초기적 상황에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소위 '정상적'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주기별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단계에서부터 시작하여 사회적, 경제적 영역과 가족, 성인과 아동을 위한 사회화 영역으로서의 가족, 정서적 만족 영역으로서의 가족 등과 같은 보편적인 주제를 중심으로 사회적 요구가 많은 영역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특히 IMF 지원을 받는 경제적 급락 이후 두드러진 수많은 위기의 가정에 대한 요구에 대응하려면 독일의 가족교육기관이 '특수문제'를 가진 가정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나 '특수문제'를 가진 사람들이나 '소외계층'의 사람끼리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한 가족들에게 심리적인 위안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 나라에도 '홀어머니를 위한 모임', '실직한 아버지들의 모임' 등과 같이 같은 문제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모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모임들이 사회단체의 지속적이고 전문적, 심리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런 모임이 소속될 수 있는 좀 더 큰 사회단체가 필요하고, 그 사회단체에서는 이런 모임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시대적 특성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출현은 앞으로도 계속 가속도가 붙을 것이다. '교통고아'라는 새로운 단어가 생길 정도로 증가해 가는 교통사고와 그로 인한 신체장애, 각종 질병의 난무, 마약문제, 이혼가정의 폭증, 청소년들의 탈선 등은 점점 '특수문제 집단'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로 드러나고 있다.

독일 가족교육기관의 교육방법은 지식의 전달보다는 일상적인 삶과 연결되는 활동을 통해 이루어진다. 특별한 지도자나 전문가가 없이 모여 활동하는 '어머니센터'나 '자조그룹'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교육기관도 등장했다. 소외계층, 주변계층, 혹은 새로운 정책의 대상이 되는 계층을 다룰 때에는 '공동작업'이 더욱 중요해진다. 그러므로 한국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실습이나 공동작업(놀이, 만들기, 노래, 제조, 축제나 견학, 소풍 등의 준비와 실행), 집단 토론 및 상담, 강의 및 강연, 주말 프로그램(가족오락, 실습 및 토론의 밤), 열린 만남(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의 만남을 위한 공간 제공) 등 다양한 활동 중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족문화교육 자체가 여러 가정을 동시에 수용하기 때문에 가족간의 교류는 저절로 이루어지지만, 그 교류가 지역공동체 의식으로까지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 대항의 경쟁보다는 토론을 장려하고,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같은 문제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은 동료의식으로 발전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공동체 의식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다.

### 3. 독일의 가족교육기관 운영이 주는 시사점

독일의 가족교육기관들의 조직망은 중앙의 본부를 중심으로 각 지방에 분과가 있는 형식이 아니라, 비슷한 활동을 하는 많은 사회단체들이 자신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고 지속적인 강사교육을 위하여 관련 연합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는 형식을 취한다. 가족교육기관은 '자유시장' 체제하에 있는데, 국민들이 가족문화교육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므로 수요와 공급의 문제 때문에 문을 닫는 가족교육기관은 없었다. 다만 그 '자유시장'에서 대부분의 고객들이 중류계층이므로 진정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조운동' 및 '열린 공간'의 방법으로 소외계층을 포함하려는 시도를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가족문화교육은 일반인의 인지도가 부족하고, 한국 가족의 특성을 기반으로 한 질적 프로그램도 확보되어야 하며, 사회교육의 경험과 인력, 시설을 갖춘 관계 기관이 있어야 하는 점에서 자유시장 논리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가족문화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관과 민이 적절히 협력해야 하는데 자칫하면, 민은 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하향식 행정체제가 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그러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가족문화교육을 담당할 기관은 첫째, 이미 시설이 갖추고 있으며, 둘째, 지역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와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셋째, 관의 공적 개입으로 양적 확산을 꾀할 수 있는 기관이어야 하며, 넷째, 그 기관도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 실시로 득이 있어야 하며, 다섯째, 전국에 흩어져 있는 가족문화교육기관들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으로 지역사회학교 조직이나 전국적 규모의 비정부기관(NGO)이나 종교기관이 가능할 것이다. 프로그램의 양적 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지역사회 내의 학교나 기관들을 통한 가족문화교육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나,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이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대학의 연구기관과 끊임없는 협력작업이 있어야 할 것이다.

가족문화교육의 필요성은 오늘날 전 세계에 확장되고 있다. 비록 경제적, 사회적으로 좀 더 나은 조건 속에 있었던 국가들에서 시도되었던 방법들이 다른 문화권 속으로 그대로 이식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독일의 가족교육기관의 역사적 경험은 경제적 급락을 통해 가정의 붕괴와 가치관의 혼란, 세대간의 갈등의 격화와 가족 역할의 혼돈을 더욱 급작스럽게 경험하게 된 우리 나라에서 이루어져야 할 가족문화교육프로그램의 내용과 운영 방향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앞으로 이러한 시사점과 한국가족의 특성에 근거한 미래 한국 가족문화의 방향을 설정하여 바람직한 한국 가족문화교육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성천(1993). 사회복지학에서의 가족연구 접근방법. 가족학논집 제5호. 201-229.  
김혜영(1996). 한국가족문화의 계급별 특성에 관한

경험적 연구.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오윤자(1992). 가족생활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 기초연구(II).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0권 제2호. pp. 209-229.
- 정문성(1997). 현대 한국문화의 변화와 시민성의 과제. 조영달(편):한국 시민사회의 전개와 공동체 시민의식. 교육과학사.
- AGEF(1982). Eltern-Kind Gruppen im ersten Lebensjahr. Durchführt nach dem "Prager-Eltern-Kind-Programme" pp. 96-106.
- AGEF(1989a). Eltern-Kind-Gruppen in der Familienbildung. Bonn. 68p.
- AGEF(1989b). Das Prager-Eltern-Kind-Programme (PEKIP). 4. Aufl. pp.60-62.
- BAG-Info(1984). Die "Erziehungsstunde" im Säuglingspflegekurs und das Spiel "Start ins Leben" 3, 18-27.
- Dax, H.(1978). Eltern-Kinder-Arbeit. Ein Erfahrungsbericht. BAG-Informationen, Juli 1978, 2, pp. 3-6
- Erny, P., Jeong, M.-R.(1996). Expériences de formation parentale et familiale: France-Allemagne-Belgique-Amérique du Nord-Corée du Sud. Paris, L'Harmattan, 271p.
- Jansen, R., Keil, S., Lorenz, Ch., Remy, G.(1981). Mitarbeiter-innen in Familienbildungsstätten. Eine Situationsanalyse als Orientierungshilfe für die Fortbildung. Schriftenreihe des Bundesministers für Jugend, Familie und Gesundheit, 91, Stuttgart, Kohlhammer, 310p.
- Jeong, M.-R.(1988). L'Education des parents en France et en Allemagne. Mémoire de DEA en Sciences de l'Education. l'Université des Sciences Humaines de Strasbourg.
- Jeong, M.-R.(1993). L'Education des parents: Expériences dans le monde. Perspectives pour la Corée. Thèse de l'Université des Sciences Humaines de Strasbourg.
- Keil, S.(1983). Gemeinsam lernen. Mitarbeiterbildung vor Ort. Ein Arbeitsbuch für die Familienbildung. Gelnhausen.
- Schaefer, K.(1978). Thesen zur Eltern-Kinder-Arbeit. BAG-Informationen, Juli 1978, 2, pp. 7-12
- Schiedeck, J.(1989). Mütterschulung im Nationalsozialismus. AGEF.
- Schleicher, K.(1984). Arbeits-und Orientierungshilfen für die Familienbildung. Köln.
- Schymroch, H.(1989). Von der Mütterschule zur Familienbildungsstätte: Entstehung und Entwicklung in Deutschland. Freiburg, Lambertus.